

## 모바일 시대의 모바일 기기

사디 플랜트 (Sadie Plant)

무선 세계의 특징 중에 바로 이동성(mobility)이 이동기술에 가장 큰 경쟁력을 부여한다. 물리적 연결과 고정 위치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디지털 기기 중 가장 최초로 보편화된 사소한 이동전화마저 사용자를 모바일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탈바꿈시켜준다. 의수 또는 의족 같은 인공기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친밀한 기기다. 우리 몸의 감각 기관, 기능 또는 손발을 놀리듯 이동전화를 친숙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시공을 초월하여 사용자의 의사소통 범위도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이 사소한 기술의 “이동성”이라는 측면은 그러나 “휴대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선 전화가 “대도시의 탄생과 국가의 통일과 때를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생겨났다”고들 말한다.<sup>1</sup> 이와 유사하게 모바일 전화도 새로운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생겨난 듯하다. 출퇴근하는 직장인, 난민, 유목민, 자유여행가, 패키지 관광객, 망명자, 이주근로자 등 유례없는 숫자의 인구가 항시 움직이고 있다.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불안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례없는 정보, 자본, 상품의 흐름 때문에 기존의 고용, 가족, 공동체, 문화생활 구조가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바일은 이런 흐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 대처를 잘한다. 새로운 정보, 자본, 상품의 흐름으로 인해 단절되는 연결고리를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이동성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보다 확산시키고, 또 이로 인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더욱 확대된다.

---

<sup>1</sup> Casson, 전화의 역사

이동전화의 역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빠르고 포괄적이고 예측불허한 움직임의 연속이었는지 알 수 있다. 다양한 엘리트층의 전유물로 20여 년간 사용되다가 대중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간 최초의 디지털 기기로 자리매김했을 때 사람들은 이동전화의 이러한 “편재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업광고대행사마저 무선통신이 얼마나 인기를 끌 것인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1990년대 내내 뉴미디어와 통신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지만, 이동전화에 대한 얘기는 유선통신의 파장이라는 주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전화와 기술변화의 변두리에 있던 지역 및 공동체사회에까지도 이동전화의 정착을 했다. 모바일 기술 사용자 수와 사용 형태가 배가되고 다양화하면서 가장 외딴 곳까지도 통신을 확산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모바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구입하기 쉬운 이동전화는 여러 사회적인 경계선을 지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빈부격차를 뛰어넘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미묘한 의미의 “이동”이라는 것에 모바일은 일조를 한다. 모든 계획이 우발적이고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불안하고 다소 무책임한 느낌; 삶이 예측불허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가는 것; 유선전화였으면 부적절하게 여겼을 이상한 순간에도 이동전화를 받거나 공원에서 조깅하면서 은행업무를 보고 자전거를 타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약간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 경계, 능력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 또한 유동적이 되어가고 있다.

상품, 정보, 자본, 사람의 이동의 자유는 21세기 초를 규명하는 중요한 이슈다. 이동전화는 이 모바일 시대의 필수품이자 대표적인 예면서 완벽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 2003 Art Center Nabi All right reserved.